

# 열대거세미나방 유충 발견시 즉시 신고해야

농진청, 전국 농촌진흥기관 비래해충 성충 포획장치 활용 조사강화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와 제주시 한림읍 수월리에서 지난 17일 관리 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이 각각 1마리씩 발견돼 관계기관이 대응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열대거세미나방의 대규모 발생에 대비해 빠른 방제를 위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기관별 및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비래해충 성충 포획장치(곤충성페로몬 트랩)를 활용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아직까지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에 의한 옥수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협력해 제주 전 지역 옥수수 재배지에 대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의 해충 예찰·방제 담당자가 육안이나 성페로몬 트랩으로 유인 조사하고 있으며, 실시간 발생 상황을 공유해 제주 이외 지역의 열대거세미나방의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올해 열대거세미나방은 2021년보다 약 3주, 2020년보다 약 2주 늦게 처음 발견

됐다. 중국 남부지방의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 해충의 초기 발육이 더뎠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농진청은 전국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의 해충 예찰·방제 담당자가 육안이나 성페로몬 트랩으로 유인 조사하고 있으며, 실시간 발생 상황을 공유해 제주 이외 지역의 열대거세미나방의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올해 열대거세미나방은 2021년보다 약 3주, 2020년보다 약 2주 늦게 처음 발견

됐다. 중국 남부지방의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 해충의 초기 발육이 더뎠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농진청은 전국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의 해충 예찰·방제 담당자가 육안이나 성페로몬 트랩으로 유인 조사하고 있으며, 실시간 발생 상황을 공유해 제주 이외 지역의 열대거세미나방의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올해 열대거세미나방은 2021년보다 약 3주, 2020년보다 약 2주 늦게 처음 발견

2001년부터 중국 농업부 전국농업기술추진사업과 한·중 비래해충 예방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열대강성에서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이 출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열대거세미나방의 국내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거세미나방 피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24개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농가와 농촌진흥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규모 피해는 없었다.

농촌진흥청은 열대거세미나방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옥수수 보리, 수수 등 벼과(科)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자가 예찰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 유충기에 제때 방제하면 피해율은 1퍼센트 정도로 그치지 않, 방제 시기를 놓치면 10~50퍼센트까지 피해율이 증가할 수 있다.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이 잡아먹은 흔적을 발견한 즉시 병해충 신고 대표전화(1833-8572)나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하고,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약제를 확인한 뒤 방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노형일 과장은 "열대거세미나방으로 의심되는 해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하고 신속하게 방제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저신용 자영업자 경영안정화 지원

NH농협은행 전북 2억5000만원 출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정경민·사진)는 장곡지역 소재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자금으로 해소와 경영안정화 등의 금융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에 2억 5000만원을 출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출연은 올해 5월 전라북도와의 협약을 통한 전라북도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금융지원대출 취급을 위한 지원으로 사용되며, 도내 금융소외 지역을 위해 총 75억원의 대출을 2% 미만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총 30억원의 2%미만 저금리로 창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자에게 기술창업 촉진,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전라북도 기술창업 융합지원금 융자지원 대출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002년부터 매년 전북지역보증재단에 기금출연을 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정경민 본부장은 "금차 출연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춘향골 시설복숭아 첫 출하 'START'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춘향골 시설복숭아가 첫 출하를 통해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5월 중순부터 바쁜 손길로 수확하고 있다.

금지면에서 출하된 시설복숭아 품종은 안전한 복숭아로, 지난 1월 중순부터 개장을 시작하여 노지보다 빠른 3월 상순 경에 꽃이 만개하며 4월 상순에 적과 후 5월 중순에 수확을 하는데 노지와 비교하여 약 40일 정도 빨리 수확기를 앞당겨 생산하게 되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에 의하면 시설하우스복숭아 재배는 당이 높고 향이 좋은 품종인 만큼, 그 친환경, 미용 품질을 재배해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30여개 농가 10ha에서 시설복숭아가 재배되고 있으며, 노지재배에 비해 3~4배의 높은 조수익을 올리고 있어 인근 복숭아 재배농가들의 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시설재배는 노지재배와 달리 휴면이 완료되는 1월부터 시기별 적절한 온도 관리와 수분관리 인공수분 등 고도의 재배관리 기술을 필요로 하며, 시설재배를 할 경우 강우를 차단할 수 있어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병해충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기를 촉진시켜 초기에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어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작형이 분산돼 노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 난방비 및 시설비가 높아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신규농가의 경우 철저한 사전준비를 필요로 한다. /남원=원기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2022년 5월, 제도 시행 35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에 500만 명을 넘은 이후 2년 1개월 만에 600만 명을 돌파했다. 연금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4년 8개월, 500만 명 돌파까지는 3년 6개월이 소요됐으며,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수급자의 증가는 고품질 생활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망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 시대

공단, 제도 시행 35년만에... 600만번째 수급자에 기념품 전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2022년 5월, 제도 시행 35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에 500만 명을 넘은 이후 2년 1개월 만에 600만 명을 돌파했다. 연금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4년 8개월, 500만 명 돌파까지는 3년 6개월이 소요됐으며,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수급자의 증가는 고품질 생활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망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공단은 연금수급자 600만명 돌파를 기념해 '600만 번째 수급자'로 선정된 박용수(82) 씨에게 국민연금 수급증서 및 기념품을 전달했다.

박용수 씨는 1988년부터 가입해 총 31년 3개월 동안 8,658만원을 납부했으며, 8개월의 실업크레딧 기간 추가로 월 9,020원이 인상돼 매월 총 188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기대수명(83.4세)까지는 약 4억 3천 6백만 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납부한 보험료의 5배 이상이 되는 금액이다.

박씨는 인터뷰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금을 납부했고, 연금을 납부할 때는 언제쯤 받는지 정말 받을 수 있는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퇴직 후 이렇게 연금으로 받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600만 돌파를 함께 축하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김정화 연금이사는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명 시대를 연 것은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3월 기준 592만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2조 6,000억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50만 명에 달하며,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994명으로 확인됐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110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97만 원이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46만원이며, 개인 최고 연금액은 246만원에 달한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 오늘 군산잠뽕라면 라이브커머스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군산원예농협(조합장 고계곤)은 24일 흰찰쌀보리로 만든 '군산잠뽕라면'과 우리 밀과 우리감자로 만든 '채소라면'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방송되는 라이브커머스에서는 기존 판매가 대비 20%이상 할인된 가격과 무료배송으로 1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잠뽕라면은 지역 특산물 흰찰쌀보리와 감자를 이용해 산·학·관이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고소하고 소화기 잘 되며 저염·저칼로리로 기존 라면에 비해 나트륨 함량 30%이하로 지난해 1월 본격 시판됐다.

채소라면은 채식주의 식품의 주요



먹거리 제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내산 표고·파·당근·미역 등으로 만들어진 분말스프는 개운한 맛과 짭짤한 면발로 우리 땅에서 나온 자란 농산물을 이용해 만들었다. /김윤상 기자

### “소상공 권익보호에 앞장 설 것”

####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안군 신임 회장 취임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전안군 제4대 회장 취임식 및 임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의 법적보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단체다.

전북 연합회는 지난 2014년 조직돼 올해로 제7기를 맞고 있으며, 30여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신임 전안군 회장은 전북대에서 공학석사와 원광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전문 기술인으로 전기 설비 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나라전기관리공사 총괄대표와 전북대학교 호남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국제외이즈먼 한국지역 임원과 YMCA 이사 및 한국전기안전협회 전북도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한 공로로 지식경제부 장관 및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전안군 회장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폐업 및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발생했다"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지

자체와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상생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소상공인들이 즐겁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또 "아직 미조직 상태인 4개 시·군 지부를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등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연합회 중앙회장과 타시도 광역회장을 비롯해 전라북도, 전북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관련 단체 임원과 유관기관 담당자 및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해 회장 취임식과 임원 발대식을 축하했다.

또한, 모범회원에 대한 중앙회장상·도지사상 및 전북중기청장상 표창장 수여도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 미래항공 교통 생태계 확대 '맞손' | LX, 공항공사와 협약 체결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이하 LX공사)가 한국공항공사(사장 윤영중·이하 KAC공사)와 손잡고 미래항공 교통(UAM·UTM) 생태계 확대에 나섰다.

이는 미래항공교통의 핵심인 UAM 초기 상용화와 도심 항공기출입 지원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LX공사는 23일 KAC공사와 미래항공 교통분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미래항공교통 분야 연구와 기술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디지털트윈 기반 3차원 정밀지도 제작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LX공사는 UAM 팀코피아와 K-드론 시스템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하며 미래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 뛰고 있으며, 이를 위해 UAM 인증체계 확립, 항공안전법 등 제도 정비 지원하고 있다.

미래 교통 서비스로 주목받는 UAM은 높은 인구 밀도와 고밀도 교통 체증의 한계점을 가진 도시 교통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정렬 사장은 "LX공사의 3차원 정밀지도가 KAC의 항공정보 표준화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면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위한 구성요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영중 사장은 "LX공사의 협업을 통해 기술을 공유하고 제도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경진원, '전북천년명가' 10개 업체 선정

경진원, '전북천년명가' 10개 업체 선정

▲의정농부수 - 3대 가업을 잇는 저수명가(고창)이다

▲최종선명가 - 10업체는 전북도지사인 중 '전북천년명가' 현관을 제공하고, 홍보영상 촬영 및 방송출출, 유튜브 홍보영상 업로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경영지원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담멘토 매칭 멘토링지원, 특례보증 등 선정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으로 일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진원 이현용 원장은 "천년명가는 도내 성장잠재력 있는 30년 전통의 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전북천년명가 선정업체가 존속·성장하여 지속 가능한 구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들 업체의 노하우와 경영 경험 등을 전수해 성공모델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라북도(위원장 이현용)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이 이경진원(이사장 이현용)은 도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의 업체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북천년명가(全北千年名家)'는 도내 전통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선정해 지난해까지 30업체가 선정됐다. 올해에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 10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1차 서류평가와 더불어 더 세밀한 평가를 위해 현장평가를 진행해 17업체를 선발했다. 2차 대면평가까지 총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했으며, 업체